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DON'T GET ME WRONG
가제 : 오해하지마
저자 : Marianne Kavanagh
출판사: Atria/Emily Bestler Books
발행일: 2015년 8월 2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너무나 긴 세월,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했던 언니의 남자친구와 여동생, 그들 앞에 닥친 비극
사소한 것 하나까지 사사건건 의견이 엇갈리는 킴과 해리. 런던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앙숙이다. 그런 두 사람이 서로 등돌리고 살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에바 때문이다. 에바는 킴의 언니였고, 해리는 어릴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로 쪽 연인으로 붙어 지낸 사이다. 그러나 에바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면서, 킴과 해리 두 사람의 깊은 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킴이 해리를 처음 만난 건 열세 살이던 더운 여름날, 마당에서 해를 찌고 있을 때였다. 폭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그날, 늘 일광욕을 좋아하던 킴은 피부도 늙는다는 엄마의 만류에도 심대 특유의 반항심에 고집을 피며 마당에 느긋하게 누워 있었다. 반쯤 잠들어 있던 그 때, 고요한 침묵을 깨고 에바가 찾아왔다. 그 때 옆에 서 있던 해리를 처음 본 것이다. 이후 심대 시절 내내 해리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버지는 늘 어딘가로 불일을 보러 가시고, 엄마는 잔뜩 부풀린 드레스 차림에 샤넬 향수를 온 몸에 뿌리고서 주중이든 주말이든 저녁마다 모임에 불려 다녔다. 초대하는 곳은 어디든 갔고 약속이 없으면 쇼핑을 다니며, 고급 주택가에서 공주처럼 자란 귀부인 흉내를 내고 다녔다. 심지어 엄마는 해리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이유는 에바의 열은 금발과 해리의 짙은 머리 색깔이 잘 어울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게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부였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킴, 에바, 해리는 주말을 늘 함께 보냈고, 킴은 아래층 식탁에서 숙제를 펼친 채 위층에서 언니와 해리가 노는 것을 견뎌야 했다.

겉모습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각자의 진심과 사랑, 생사의 기로에서 드러나는 따뜻한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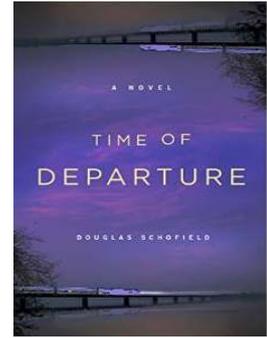
김과 해리는 첫만남부터 서로에 대한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과 말만 볼 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서로의 생각과 아픔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 긴 세월을 오직 에바 한 사람 때문에 알고 지내왔다. 김의 눈에 비친 해리는 연예인처럼 겉치장이나 온통 신경 쓰고 세상에 모르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거들먹거리고, 값비싼 자동차를 보란 듯이 끌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는, 너무 가식적인 인간일 뿐이다. 사회운동에 앞장서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상주의자 에바가 이런 사기꾼 같은 해리와 붙어 지내는 꼴이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김이 싫은 내색을 할수록 해리는 덮어놓고 자신을 미워하는 김을 약 올리는 일에 더욱 주력한다.

그러나 에바가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김과 해리 두 사람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삶의 기로에 선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에바를 위해 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긴 시간 편견에 가로막혀 드러나지 않았던 김과 해리의 진심과 서로가 알지 못했던 깊은 비밀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삶과 유대감,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진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리안 카바나(Marianne Kavanagh)는 <마리끌레르>에서 부편집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텔레그라프>, <데일리 메일>, <가디언>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했다. 첫 소설 <<FOR ONCE IN MY LIFE>>는 포르투갈,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터키 등에서 번역 출간됐다.

제목 : TIME OF DEPARTURE
가제 : 떠날 시간
저자 : Douglas Schofield
출판사: Minotaur Books
발행일: 2015년 12월 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30년 전 벌어진 미해결 연쇄살인 사건에 얽힌 놀라운 반전을 담은 하드보일드 범죄스릴러 소설

플로리다 주 검사 클레어 텔봇은 비상한 두뇌와 거침없는 수사 방식으로 인정 받는 유능한 검사지만 모두가 그녀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중범죄 수사팀 팀장으로 임명되자,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는 커져만 가고, 아예 대놓고 클레어의 능력이며 나이, 심지어 여자라는 것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다른 부서도 아닌 중범죄 수사팀을, 어린 여자 검사가 이끄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그 회의적인 반응들을 유도한 것이다. 그 높은 편견의 벽 앞에서 할 일만 제대로 하자고 마음을 다잡는 클레어에게 미해결 사건 하나가 던져진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뼈만 남은 시체 두 구가 발견된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이 두 구의 시체의 신원을 조사하던 중, 클레어는 1970년대에 발생한 미해결 연쇄살인 사건을 접하게 된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사건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읽으면서 클레어는 최근 발견된 두 구의 시체와 그 오래된 사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당시 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마크 헤스팅스와 만난다.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던 마크는 클레어의 수사를 기꺼이 돕겠다고 나서지만, 서서히 수사 방향을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고집을 피우면서 클레어와 마찰을 빚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크는 클레어의 개인적인 습관들이 묘하게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고, 클레어 역시 미궁에 빠진 이 사건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는다. 느닷없이 이 사건은 오직 클레어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꺼낸 마크. 그 사이 또 다른 묘가 발굴되고, 마침내 마크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혼자 알고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클레어도 알게 된다. 바로 클레어 자신의 과거가, 사건 해결과 마크와의 관계 모두를 좌우하는 열쇠였다는 사실이었다. 살인 사건의 핵심이 다름아닌 클레어의 과거 속에 있었던 것이다.

시체 두 구에서 시작해 꼬리를 물고 드러난 극악무도한 살인사건, 오랜 시간 잊혀졌던 비밀들

평소에 알 수 없는 꿈을 자주 꾸던 클레어. 내용은 항상 똑같다. 어릴 적 살던 집에서 거리 하나만 건너면 있던 놀이터에 자신이 서 있는 꿈이다.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주변을 뛰어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여덟 살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다. 꿈에서 클레어는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마치 망원경으로 그 장소를 들여다보듯 제 3자의 시선이 된다. 꿈속에서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

느껴질 뿐, 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그네를 타고 노는 아이들, 시소를 타는 아이들만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 틈에,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인다. 그리고 그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클레어! 이제 집에 들어와야지! 어서!” 몸은 보이지 않지만, 클레어는 열심히 집으로 달려간다. 현관에 나와 있는 엄마와 마주치면 엄마는 꼭 안아주고, 그 남자는 차에 오른다. 거리 끝에서 남자가 탄 차의 후미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고, 꿈은 끝이 난다. 클레어는 수없이 반복되는 이 꿈으로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만 할 뿐,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사건과 마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작가가 영화대본으로 먼저 완성한 ‘Time Out Of Mind’를 토대로 쓴 세 번째 소설로, 시종일관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펼쳐지고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지는 하드보일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더글라스 스코필드(Douglas Schofield)는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역사와 법학을 전공했다. 캐나다에서 30년 이상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살인,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수백 건 접했다. 《Fight Risks》 등 두 편의 범죄소설과 극본을 썼다.

제목 : THE HUNDRED-YEAR FLOOD

가제 : 100년만의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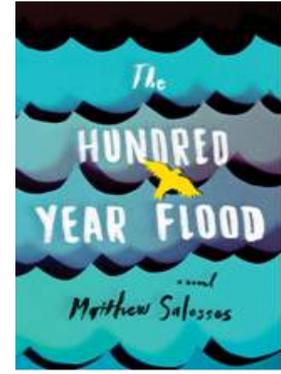
저자 : Matthew Salesses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15년 8월 11일

분량 : 259 페이지

장르 : 소설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청년,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찾은 프라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랑

‘티’로 불리는 토마스는 도망치듯 프라하로 건너왔다. 모든 기억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에 입양된 티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항상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느끼며 홀로 외로워했다. 비극적인 사건도 이어졌다. 양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면서 온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고, 온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 삼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모든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스물두 살 대학생 티는 한 학기를 체코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2001년 12월 어느 날, 티는 프라하에 도착한다.

낮선 환경이지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지 금세 적응한 티는 혁명 예술가로 활동하던 파벨 피카소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의 아내 카트카를 소개 받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파벨 모르게 카트카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된 티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양아버지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깊은 딜레마에 빠진다. 그런 고민 속에서도 카트카는 티와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진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잠깐의 행복도 잠시, 프라하 시 전체에 거대한 재앙이 닥친다.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홍수가 시작된 것이다. 시 전체에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홍수가 도시를 쓸어 내린다. 그런데 티는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경고도, 구조 대원의 손길도 모두 거부한다.

인간의 힘이 너무나 미약해지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티는 이렇게 프라하에 물이 끝없이 차올라 도시에서 자신과 카트카가 세상과 분리될 수만 있다면, 둘은 다른 사람들이 달을 수 없는 곳으로, 두 사람의 과거를 모두 끊어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데없이 찾아온 일당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티의 이런 바람은 산산이 부서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국 프라하까지 티를 데리러 온 양아버지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돌아와 재활병동에 머무르게 된 티. 그는 프라하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을 정리해보려 한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연재해, 그 앞에서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사랑을 찾아가는 성장소설

소설은 주인공이 프라하에 머물던 시간과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점을 번갈아 가며 등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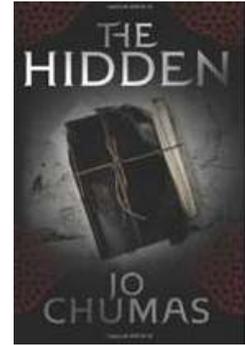
키며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인물의 진실과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낸다. 입양아로 늘 자신의 존재에 혼란을 겪으며 사는 티는 오랜 역사를 품은 프라하라는 낯선 도시에서 영웅, 신화, 유령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금세 매료되고, 가장 낯선 환경 속에서 어느 때보다 자신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는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욕망과 자유롭고 싶은 욕망,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혼자만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 이 상충되는 욕망들 속에서 헤매던 젊은 청년이 저항과 수용, 애정과 거부의 감정 사이에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과 갈등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낸 소설이다. 프라하의 이국적인 배경 속에서, 다양한 인물과 역사, 신화를 통해 인생에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어느 한 면이 있는가 하면 다음 순간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자 소개>

매튜 세일제스(Matthew Salesses)는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다. <뉴욕타임스>, NPR(미국 공영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입양과 인종 문제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 2013년 중편 <<I'm Not Saying, I'm Just Saying>>을 발표하고 위 소설을 장편 데뷔작으로 완성했다.

제목 : THE HIDDEN
가제 : 감춰진 이야기
저자 : Jo Chumas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3년 10월 22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소설



2013년 ‘아마존 브레이크스루 소설상’ 미스터리 & 스릴러 부문 수상작

1940년, 이집트 시나이 사막에서 젊은 대학교수 아지 이브라힘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다. 같은 이집트 출신으로 교사로 일하던 에이미 이브라힘은, 스무 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순식간에 잃은 미망인이 된다.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남편이 이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에이미. 그런데 남편의 유품을 찾으러 들른 학교 사무실에서 단서를 발견한다. 22년 전에 누군가 아랍어로 쓴 일기장 한 권이었다.

놀랍게도 1919년에 그 일기를 쓴 주인공은 이집트 왕가의 딸 헤즈바로, 다름아닌 에이미의 어머니였다. 헤즈바는 그 일기장에 이집트 애국주의 혁명이 일어난 1919년 당시 급진적 혁명 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하면서 보고, 들은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해두었다. 존재조차 몰랐던 어머니는 존재, 사람들이 쉬쉬하며 알려주지 않던 어머니에 관한 이상한 소문의 실체를 죽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일기장으로 알게 된 것이다. 대체 남편은 이 기록으로 무엇을 하려던 걸까?

헤즈바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기억하며 살았다. 아버지가 수치스러워하거나 문화와 관습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헤즈바가 마지막까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당시 이집트를 지배한 영국을 나라에서 몰아내고 이집트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열일곱 밖에 안 된 어느 날, 헤즈바는 ‘혁명단’이라는 비밀 테러리스트 단체에 들어가 영국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기 시작한다. 아내를 여럿 거느리고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남편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알렉산더 사이에서, 헤즈바는 이집트를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한 대접을 받는 사회로, 종교와 관습, 억압에서 자유로워진 세상으로 만들고 말리라 결심한다.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된 젊은 대학교수, 잔혹한 죽음의 이유를 찾아나선 그의 젊은 아내

에이미는 20년 전 어머니가 살았던 테러와 반란군의 시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정치와 억압을 그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느낀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남편의 죽음을 파헤치며 범인을 찾고 불의에 맞서려 애쓰지만, 20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이집트의 상황은 에이미를 어머니가 겪은 것과 맞먹는 공포 속으로 끌고 간다. 1940년대 이집트는 파루크 왕이 집권

하고, 그의 수석 고문관은 'X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비밀 단체와 손잡고 왕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현 정부를 몰아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에이미의 남편 아지는 이 엄청난 정치적 음모가 서서히 그 형태를 갖추어가던 과정에서 살해당한 것이다. 에이미는 남편이 다니던 대학의 교수들이 참석한 파티에서 카이로에서 발행되는 신문 <해방>의 편집장을 만나,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된다. 이 편집장은 'X라는 사람들의 모임'의 여러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에이미는 그를 통해 남편이 단순히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겪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에이미의 이야기는 일기장 속 엄마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 여전히 여자는 살림하고 아이나 키우는 2류 시민으로만 대접 받는 사회에서, 에이미는 사회적 편견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비밀을 밝혀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집트 카이로라는 이국적인 배경에서 사랑과 배반, 정치적 소용돌이가 한데 뒤엉킨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1919년과 1940년을 넘나들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집트의 상황과 그 속에서 온갖 핍박을 견디며 살아야 했던 여성들, 하층민들의 삶을 다양한 시선에서 보여주며, 20년이라는 시차에도 마치 평행선을 달리듯 같은 길을 걷어가는 모녀의 여정과 두 사람이 끈질긴 고투로 진실의 실체를 파헤치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 추마스(Jo Chumas)는 영국 출신 작가로 스페인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 영국에서 오랜 세월 기자로 일하면서 소설을 집필했다.

NON-FICTION

제목 : THE MICROBE WARS: Dispatches and Battle Plans

From the World Conflict We Cannot Afford to Lose

부제 : 미생물 전쟁: 제2의 에볼라, MERS를 막기 위한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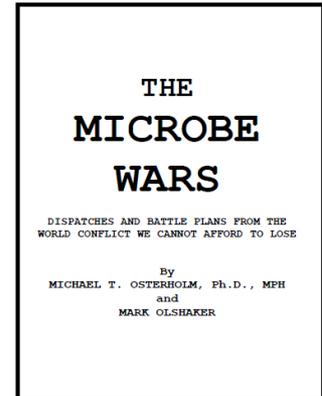
저자 : Michael Osterholm, Ph.D., Mark Olshaker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출간일: 2016년

분량 : 미정

장르 : 교양/의학



“인류는 세 가지의 오랜 적과 싸워 왔다. 바로 열병, 기아, 전쟁이다. 이 중 가장 두려운 적은 열병이었다.”

이전보다 서로 밀접해진 지구촌, 전염병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를 두려움에 몰아넣은 에볼라 사태를 비롯해, 인류는 기원전부터 기술이 놀랍게 발달한 현대 사회까지 끝없이 전염병과의 전쟁을 거듭해 왔다. ‘미생물 전쟁’은 사스, 조류독감, 그리고 최근의 에볼라 사태까지의 풍부한 연구사례들을 통해 예기치 못한 재앙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무엇이, 왜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저자는 전염병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전문가의 교양 강연을 듣는 듯한 1인칭 말투로 우리에게 기술의 변화 과정, 전염병의 미스터리와 새로운 발견들의 기록, 우리의 현실에 대한 경고와 미래에 대한 계획, 전염병을 예방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들려준다. 이 책은 환경학 최고의 고전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 비견될 만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미생물 사냥꾼 이야기(MICROBE HUNTERS)>처럼 의학계의 비밀스러운 면들을 드러낼 것이다.

전염병은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는 다르다. 전염병은 한 지역만을 공략하고 다른 지역이 힘을 모아 도울 수 있는 자연재해들과 달리, 모두가 그 잠재적 피해자이다. 그리고 전쟁이나 갈등만큼이나 복구가 어렵고 빠르게 확산된다. 게다가 저자는 현대 사회의 환경들은 예전보다 전염병에 강해지기는커녕,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경고한다.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는 점점 촘촘하게 모여 살 뿐 아니라, 바이러스를 실은 인간과 기타 생물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많은 교통수단들은 늘어나고 있다. 목축업, 농업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지구상 살아 숨쉬는 생물들 간의 거리가 이전에 비해 너무나도 가깝고, 저자는 이러한 환경 자체가 ‘거대 미생물 공장’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위험을 지적한다. 이 책의 제목이 ‘미생물

전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목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염병을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들에 대한 온갖 소문들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는 데에 있다. 실제 사례와, 정확히 측정된 위험의 가능성과, 적절한 대응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 쫓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인류로 거듭날 수 있다. 과거 사태 분석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미래를 대비할 행동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목차>

- 1장 사스와 역학조사: 흰 가운, 검은 백조와 경고
- 2장 에볼라: 아프리카를 벗어나다
- 3장 병원체 연구: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 4장 메르스: 강력한 사스
- 5장 폴리오 퇴치의 역사
- 6장 인류의 식품수송체계는 과연 안전한가
- 7장 전염매개체: 박쥐, 모기와 음경
- 8장 항생제의 역사: 우리에게 남은 무기
- 9장 생화학테러: 인류를 위협할 범죄
- 10장 판데믹 인플루엔자: 백수의 왕
- 11장 생존을 위한 전쟁

<저자 소개>

저자인 Dr. Michael Osterholm은 CIDRAP(전염병연구 및 정책센터)의 센터장이자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중보건학회장, 환경보건과학 부문 교수,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1981년 에이즈 창궐을 경고하고, HIV의 백신이 발견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견과 모기를 통한 전염병을 예견했으며 이는 모두 적중했다. 그는 2005년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세계 경제포럼 전염병 분야의 장을 맡기도 했다. 연구 공로로 수많은 상을 수여하기도 한 그는 생화학테러를 예견한 베스트셀러인 <LIVING TERROR>를 공저했다. 또한 무기화된 천연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위한 대량 백신 생산을 이끌어내기도 한 전염병 학계의 선구자이다.

저자인 Mark Olsaker은 소설가이자 비소설 작가이며, 공중 보건과 형법에 대한 주제를 다뤄온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다. 그는 <VIRUS HUNTER>와 소설 <UNNATURAL CAUSES>, 전염병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What's Killing the Children?> <Anatomy of a Pandemic> 등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What's Killing the Children?>는 질병관리센터(CDC)에서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가 집필한 연쇄살인마 수사 논픽션 시리즈 첫 편인 <MIND HUNTER>는 데이빗 핀처 감독과 샤를리즈 테론이 HBO TV시리즈로 제작 준비 중이다.

제목 : THINKING THE 21ST CENTURY

가제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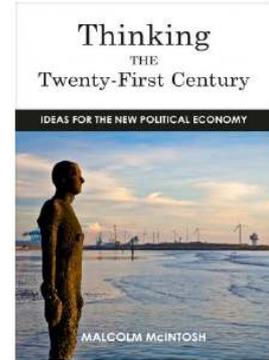
저자 : Malcolm McIntosh

출판사: Greenleaf Publishing

발행일: 2015년 4월 1일

분량 : 260 페이지

장르 : 경제, 사회



전통적인 기업 구조와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신(新) 정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5가지 방안

UN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분야를 맡고 있는 고위급 패널은 2012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간 지식 범위를 뛰어 넘어 다양한 분야가 함께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신(新) 정치 경제'라고 명명했다. 경제학, 사회과학, 사회운동, 환경과학 전문가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왔지만, 발전을 이어가려면 이제 원칙을 통합하고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세계경제의 의미와 지구에 관한 인식 전환,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경외심 혹은 미스터리)과 과학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 평화와 남녀평등주의를 고려한 의사결정, 인간이 만드는 각종 제도를 재편성하는 것, 진화하고 적응하고 학습하는 것,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경제가 형성되려면 이 다섯 가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는 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학, 철학, 정치, 경제를 총망라하여 현재의 자본주의 모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새로운 질서의 확립 방안을 모색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토대로 형성된 세계는 하향세에 접어들어 더 이상 발전에 필요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는 다양한 분야가 통합되고 연계성, 책임감, 투명성이 확보된 균형 잡힌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이 시스템 속에서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저자는 기업의 세계적인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최신 화두를 앞장서서 꺼내고, 칼 막스부터 찰스 다윈,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까지 주요 사상가와 학자들이 남긴 영향과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21세기 새로운 경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현재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력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사람, 현재의 정치적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사람, 공공부채가 만들어낸 전 세계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등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

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21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는 책이다. 전통적인 기업 구조와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 왔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시급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이룩한 발전을 미래에도 이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주는 지침서다.

<목차>

첫 발상, 머리말

- 두려움, 현실 안주, 행동
- 기후변화와 갈등
- 기업의 책임과 발전

1. 세계 경제 구출작전
2. 과학과 경외심의 균형 새로 찾기
3. 공존, 평화, 페미니즘
4. 재편성, 그리고 정치적 경제
5. 고요한 리더십 - 진화, 적응, 학습

<저자 소개>

말콤 맥킨토시(Malcolm McIntosh)는 영국 바스 스파 대학의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0년부터 기업의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가르치고 이 주제에 관한 글을 써 왔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기업센터'를 설립했으며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특별 자문가로도 활동했다.

제목 : THE UNKNOWN UNIVERSE

가제 : 우리가 모르는 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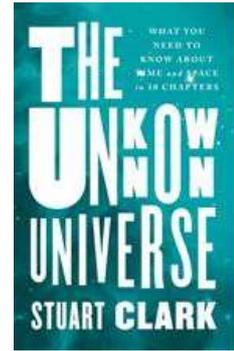
저자 : Stuart Clark

출판사: Head of Zeus

발행일: 2015년 9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과학



우주의 비밀을 밝히려는 끈질긴 노력 속에 속속 드러나는 새로운 정보들, 다시 쓰는 우주 이야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반짝반짝 빛나며 계층을 이룬 수많은 구조물들로 구성된다. 별들은 서로간의 인력으로 한데 뭉쳐져 은하수를 이루고, 은하수는 또 은하수끼리 인력으로 뭉쳐져 '성단'을 이루고, 성단은 우주 공간까지 죽 이어져 '우주적 연결망'을 구성한다. 이 장엄한 구성은 우주를 균일하게 가득 채우고 있다고 알려진 우주 배경복사 또는 마이크로파 배경 속에서,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은하계를 구석구석 채우고 있는 요소들을 최근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하나씩 들여다 보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주학자들이 은하계 물질의 평균 밀도와 에너지를 가능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그 발자취를 짚어보고, 가장 최근까지 우주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현 시점까지 은하계에 대해 파악된 것, 파악되지 않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유럽 우주국은 2013년 3월, 빅뱅의 잔광이 담긴 지도를 발표하여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주에 관한 생각을 크게 흔들어놓았다. 우주의 나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8,000만년 더 오래됐다는 결론도 내놓았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지금까지 파악된 우주의 특성들과 어긋나는 예외나 변칙들이 담겨 있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형을 새로 정립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이 책을 완성했다. 그 유명한 뉴턴의 중력 법칙을 새로 써야 한다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그저 하늘에 떠오른 허상으로 봐야 할까? 빅뱅 이전에는 대체 우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블랙홀의 바닥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뛰어 넘는 범위까지 이어질까?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 불변의 법칙으로 여기던 물리학 법칙도 바뀔 수 있을까? 저자는 이와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우주 전체의 최신 지식과 혁신적인 관점을 소개한다.

<목차>

1장. 은하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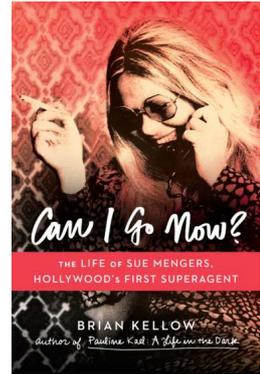
2장. 셀레네 호의 비밀

- 3장. 인력이 만들어내는 호된 시련의 장
- 4장. 별이 만들어낸 동물들, 별자리의 발견
- 5장. 은하계도 구멍이 있다
- 6장. 밤하늘을 수놓은 풍성한 정원의 풍경
- 7장. 키아로스쿠로 - 아원자의 세계
- 8장. 내일이 없는 오늘 -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
- 9장. 선형 시간관, 그리고 다중우주론
- 10장. 상대성 이론과 중력 특이점

<저자 소개>

스튜어트 클락(Stuart Clark)은 영국 왕립천문학회 소속 학자로 <가디언>에서 우주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천문학 기자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저서를 발표했으며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됐다.

제목 : CAN I GO NOW?
가제 : 이제 가도 되나요?
저자 : Brian Kellow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5년 9월 8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전기



1960년대 중반 할리우드의 거물급 스타 에이전트로 급부상한 수 멩거스, 그녀의 유별난 생애

할리우드 최초의 슈퍼 에이전트이자 1960년대와 70년대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가장 별난 인물로 손꼽히는 수 멩거스.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라이언 오닐, 페이 더너웨이, 마이클 케인, 캔디스 버겐 등 당대를 풍미한 대형 스타들과 함께 일했던 수 멩거스의 일대기가 전기 작가 브라이언 켈로우를 통해 완성됐다. 수 멩거스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200명 넘는 쇼 비즈니스 분야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수많은 일화들이 가득한 그녀의 매력적인 인생 이야기 속에는 1950년대 뉴욕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초반 할리우드까지 이어진 거대한 연예계에서 이 에너지 넘치는 여성 한 사람이 펼친 활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 멩거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1960년대 중반 전까지만 해도 연예계를 비롯해 재능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에이전트는 그저 배경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와 대담성을 갖춘 수는 그 역할에 절대 만족하지 못했고, 에이전트의 역할에 연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는 현재 미국 최대 연예 에이전시로 꼽히는 아이씨엠 파트너스(ICM Partners)의 전신 '크리에이티브 매니지먼트 아소시에이트(Creative Management Associates)'가 설립되는 동력이 되었다.

수 멩거스는 연예인 에이전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우들, 감독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시대에, 그녀는 단시간에 영화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최초의 여성 에이전트로 우뚝 섰고 그 지위를 끝까지 유지했다. 또한 더 이상 대적할 사람이 없는 지위에 오른 후에도 이름 하나만 믿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오만을 부리는 대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도록 설득하고 애쓰며 끊임없이 노력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갖춘 면모, 즉 기민한 상황 판단력과 뛰어난 술책, 자신감을 두루 갖춘 놀라운 실제 인물이 바로 수 멩거스였다.

여성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소통할 줄 아는 재능을 발휘했던 한 여성의 대담한 활약

또한 수 멩거스는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여성의 진입을 가로막던 높은 차별의 벽 너머로 수류

탄을 던진 인물로도 유명하다. 수는 남성들이 성적인 요소와 금전적인 성공에서 삶의 모든 동력을 얻는 존재이며, 여성들은 바로 이 점을 십분 이용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움직였다. 또한 남성은 천성적으로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며, 여성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남성들이 가지고 태어난 장점, 즉 권력을 향한 욕망과 경제적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 공격성, 경쟁심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책은 1932년생인 수 멩거스가 태어나기 전인 1901년부터 시작하여 그녀가 세상을 떠난 2011년까지 총 스무 개 장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저자는 1900년대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그녀가 2011년 사망하기 전까지 일대기를 하나하나 정리했다.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들을 대하면서 돈벌이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우선 그들이 생각하는 직업 정신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폭넓게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며 결국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을 줄 알았던 수 멩거스. 그 열정과 부단한 노력, 동시대 사람들과 남다른 면모를 보인 그녀의 재능을 접하고, 영화가 가장 큰 결실을 맺고 발전했던 황금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브라이언 켈로우(Brian Kellow)는 전기 작가이자 소설 작가로, 《Pauline Kael: A Life in the Dark》는 2011년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주목할 만한 책'에 선정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도 《Ethel Merman: A Life》, 《The Bennetts: An Acting Family》, 《Can't Help Singing: The Life of Eileen Farrell》 등 여러 인물의 전기를 발표했다.

제목 : EMOTIONAL RESILIENCE

가제 : 감정 회복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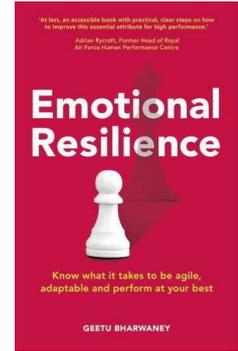
저자 : Geetu Bharwaney

출판사: Pearson Education Limited

발행일: 2015년 5월 5일

분량 : 29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상처 받기 싫어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통제하는 방법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감정과 생각, 행동, 반응은 끊김이 없이 이어진다. 출근하기 전에 감정을 집에 두고 나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현실성도 없는, 좁은 시야에서 나온 생각이다. 감정이 없으면 행동에 아무런 동기도 얻을 수 없고, 인간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접촉을 하면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이 일어난다. 나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인지되고 상대방이 전하려는 정보가 내게 받아들여질 때, 대화와 의사결정은 진전되고 모두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직장 내에서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듯 존재하는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짜증나는 상황이 그런 정상적인 감정 교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감정을 다스려 이루어야 할 목표에 집중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정의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저자는 감정의 회복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실용적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세히 소개한다. 까다롭고 감정적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재빨리 적응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과 생각,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요구와 압박, 짜증나는 상황을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현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저자가 전하는 튼튼한 감정 회복력의 핵심이다.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심분 활용하여 21세기 업무 환경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체론적인 방법을 찾아 제시한 책이다.

<목차>

- 서론
- 감정의 회복력이란 무엇인가?

- 감정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 출발점: 자아 성찰

1부: 필수 항목

자아 존중감 / 자기 통제력 / 기분 / 공감 / 이해하기 / 신경 쓰기

2부: 기술

전환하기 / 문제 해결하기 / 표현하기 / 집단 공감 / 대화하기

3부: 결과

에너지 / 발전 / 연대감 / 영향

<저자 소개>

지투 바와니(Geetu Bharwaney)는 지식 기반 감정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 'Ei World Limited'의 상무이사로 일하며 전 세계 우수 기업에서 재능 경영, 리더십 개발을 돕고 있다. 저서로는 《Emotionally Intelligent Living》이 있다.

제목 : EAT GREEK FOR A WEEK
가제 : 그리스 음식, 일주일만 먹어보자
저자 : Tonia Buxton
출판사: BLINK
발행일: 2015년 6월 4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요리



맛과 건강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이국적인 그리스 요리 100가지

신선하고 강렬한 다양한 메뉴, 채식주의에도 안성맞춤인 그리스 요리는 식욕을 돋우고 가장 놀라운 맛을 선사하면서도 몸에도 좋은 음식들로 가득하다. 그리스에서 요리사이자 작가,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저자는 행복과 건강을 동시에 얻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리스 요리들을 소개한다. 그리스의 다채로운 요리를 만드는 방법, 맛있게 먹는 법과 더불어, 이 맛있는 요리를 활용하여 체중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고 성생활을 개선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까지 알려준다.

갓 구운 맛있는 그리스 전통 빵, 입에 침을 가득 고이게 만들 미트볼 요리,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주말 요리들, 에게 해의 신선한 해산물이 만들어낸 해산물 요리, 전통 시금치 피자 사파나코피타, 양파 소스에 찐 최상급 쇠고기 요리 스티파도까지, 100가지가 넘는 풍성한 레시피가 소개된다.

저자는 그리스에서 나고 자라면서 좋은 음식과 활기찬 생활이 더 젊어보이는 외모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질병을 물리치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했다고 전하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 풍성한 에너지와 치유력을 얻을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한다.

노화 방지, 당뇨병 예방 등 다섯 가지 소주제로 요리를 분류하였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우수한 영양을 골고루 얻을 수 있다. 과일, 채소, 콩류, 올리브유가 풍성하게 들어가는 그리스 요리는 그 효과가 아주 오래 전부터 검증된 만큼, 골치 아프게 과학적 근거를 따지거나 최신 건강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즐겁게 먹고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자의 안내로 참신하고 이국적이면서 몸에도 좋은 식생활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책 활용법

머리말

1. 어려진 외모, 젊어진 기분을 느끼게 해줄 그리스 요리
2. 당뇨병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리스 요리
3. 성욕을 증대시켜 줄 그리스 요리
4. 이상적인 체중으로 만들어 줄 그리스 요리
5. 임신에 도움되는 그리스 요리

레시피

- 아침식사, 브런치 & 가벼운 간식
- 스프, 샐러드, 야채 요리
- 생선, 육류, 가금류 요리
- 푸딩, 빵, 케이크

음식의 놀라운 힘

<저자 소개>

토니아 벅스턴(Tonia Buxton)은 그리스에서 요리사, 작가, TV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토니아가 출연한 '디스커버리' 채널 'My Greek Kitchen', 'My Cypriot Kitchen' 시리즈는 30개국에 방송되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상을 수상했다.